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진시관)

# 현대불교

고령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예금 거래 실적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품기프트 최고 30만원까지 드립니다.  
문의전화 060-025-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구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구 경자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발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결혼한 사람에게 이성 친구가 가능한가. 최근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外道)를 다룬 인기드라마 '애인'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방송사들은 잇따라 '애인'과 유사한 드라마를 내보내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외도를 그린 소설들도 출간 예정이라고 한다. '불륜(不倫)을 미화했다' '주부의 60%가 애인을 원한다'는 등 '애인 신드롬'이 확대되고 있다. 드라마를 놓고 처음으로 청와대수석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16일 국회 감사청에서 '사회적 패해가 심각하다'며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부처님은 남녀가 부부로 만나는 것은 속세에 맺은 깊은 인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가정을 이루는 기초단위인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하는지 경전에서 답을 찾는다. (권집자 주)

남편은 다섯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고 부양해야 한다. 바쁜 마음으로 존경하고 아내의 뜻을 알람을 풍지않으며 단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고,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에 있어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합시오, 남편이 집에 없거든 집을 깨끗이 치우고 식사를 준비해 기다림이요, 다른 남자에게 음탕한 마음을 지니지 않음이요, 남편의 뜻대로 행하여 집의 가재도구를 숨기지 않음이요, 남편이 잠들고 나서 늙는 일이다. (육법어경)

여자가 스스로 재물을 지키지 못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가거나 남자가 마음이 방황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가도(家道)를 타스리는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잡아함경)

# 신도교육 의무화 추진

### 조계종 '신행체계화' 계획 수립...공청회등 여론 수렴

### 수계자격 강화등 빠르면 내년 시행

신도교육 의무화를 비롯 수계법 신도법 등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는 최근 '신행체계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신도의 입문 및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말 중앙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교분과위는 이밖에 수도수계, 신도법, 타종교의 사제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도 병행한다.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은 "제가신도의 신행행태를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중단적인 신행체계를 정립하여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라고 밝혔다. 포교분과위는 자료조사 및 1차 연구를 올 11월 중순까지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내년 2월말 중앙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도교육 체계화방안은 이미 포교원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교분과위 연구팀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교원이 마련한 신도교육

그러나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사찰에서 이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대해 한 교구본사의 포교국장은 "신도들의 교육을 비롯한 신행의 체계화는 중단적 과정"이라면서도 "당위성에 차츰해 사찰의 행편을 고려하지 않는 중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골프장 반대" 학인행진**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 반대 및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전국학인 법회가 지난 14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해인강원과 전승현 소속 1백여 학인스님들은 법회를 마치고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행진을 펼친후 성명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가람불사 치중 인재양성·포교 뒷전"

### 조계종 전국 주요사찰 중점감사 결과

조계종중앙총회 산하 중점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던 첫 주요사찰 중점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 인재양성과 포교는 여전히 중점순위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8개 감사분별 감사보고에 따르면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강원과 선원의 운영예산이 미흡하며 집행도 잠란되고 있으며, 또 각 사찰의 가람불사는

활발만큼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재불사에 대한 중점실행은 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교분야에서는 포교원의 행정지침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포교원은 평가보고를 다시 분석,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화에서는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합한 재무회계 작성 △사찰소유재산의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아직도 이

### 조계종 중회 11월1일 의장단선출·예산심의

조계종 제123회 정기중앙총회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이번 총회는 2년 임기의 중앙총회의 장단을 선출한다. 이밖에 △각

##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현재 2차~4차 접수중)

- 교육대상: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전철역)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광주 각 30명) 1회당 30명씩 배정.
- 교육 장소: 상보컴퓨터 교육센터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전철역)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상보컴퓨터 사옥 2층
-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 문의: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 합참: 상보컴퓨터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정				
		1차(서울)	2차(서울)	3차(부산)	4차(부산)	5차(광주)
인터넷 기본	10:00~17:00	11.23(토)	11.24(토)	11.24(토)	11.25(토)	11.25(토)
인터넷 중급	*	11.26(토)	11.26(토)	11.27(토)	11.27(토)	11.28(토)
인터넷 고급	*	11.29(토)	11.29(토)	12.1(화)	11.29(토)	11.29(토)

##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 "10월 26~27일 무욕도 간월암 참배"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사해의 작은 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고 고은 선생님·조항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튿날 선종본찰 수덕사를 참배하고 범장스님도 친견합니다.

- 일시: 1996년10월26일(토, 음력 9월 보름)~27일(일)(1박2일)
- 일정: 26일:간월암(1박)-고은 선생님 특강(철야정진도 가능)
- 27일:수덕사-방장 원당 스님 친견 (주지 범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 집결지: 서울:10월 26일 오후4시
- 조계사앞(관광버스 대기)
  - 부산:10월26일 오후1시 부산시민회관앞 (관광버스 대기)
  - 참가비:1인 4만원 (은행 온라인 계좌=국민은행: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부산지사 (051)634-5114
  - 시간을 지켜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법지부족  
타페레인이니 4면

- 교계 첫 한글사찰사전 12면
- 회암사지 복원 움직임 15면
- 대중불교경사 지상중계 2면
- '거세기 문명과 불교' 국제 세미나 6면

세계경영이 만드는  
**큰나라가 보입니다**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큰나라, 큰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의 현지 채용인 10만명 - 세계 곳곳에서 10만명의 현채인이 대우와 더불어 나라를 키워갑니다

폴란드 국영 FSO자동차사 인수 - 포천지를 비롯한 세계 언론에서 그들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천년의 꿈,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큰나라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FSO 현지 채용인 Wall Ireneusz

큰나라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순수한 경제적 중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생산적인 여유를 키워 세계 각국에 나누고 함께 숨쉬는 나라, 큰나라입니다.

**대우가 있습니다**